

(별지2)

□ 질문의원 : 조성국 의원

○ 부천시 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정치권과 시 정부간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은 ?

(답 변)

-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고 따라서 국회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.
- 그럼에도 정치권 즉 10월 26일 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 일부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.
-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가 다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면서도 혐오시설로 각인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는 넘비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
일부 정치인이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광역시설에 관하여도 우리 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인천, 시흥, 안산, 고양, 안양, 파주 등에 협의한 바 한결 같이 「불가」하다는 답변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임
-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추모공원 즉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자연친화적이며 필연적 시설임을 인식시키면서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것임
- 여러번에 걸쳐 견학한 수원 연화장·제주 양지공원의 경우 이미

5년 전에 시설된 것임에도 무연·무색·무취 등 인체에 무해한 것을 알 수 있었고, 장사문화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·유럽의 경우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

- 우리 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어느 지역의 장사시설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갖출 것이며, 특히 유골을 고온으로 일정시간 가열하면 「영옥」으로 제조되어 혐오감 없이 가정에서도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타 시설보다 완전 차별화해 나갈것임

또한 주변에는 현재 생태박물관을 중심으로 식물원이 완공단계에 있고 곧 청소년수련관과 수목원이 들어서고 문화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문예회관도 건립하여 문화공원벨트화 시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

- 장사시설은 86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시민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음.